〈제 75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사랑의 'HOPE DAY' 성황리에 마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0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제13회 사랑의 HOPE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노동계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서 사랑의 호프데이 행사를 주최한 광주은행 노동조합과 광주은행은 전 직원들이 희망을 나누고자 모금한 5천만원을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한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장애인, 결식아동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DB형, IRP 수익률 2,3분기 연속 1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익률이 전 금융권 통틀어 1위를 차지하며 2분기 연속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올해 3분기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최근 1년 수익률 기준 퇴직연금 DB형 9.54%, IRP 10.59%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42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달성했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ETF(상장지수펀드) 및 TDF(타겟데이트펀드) 등의 상품을 적극 도입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향후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고객의 자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품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무등산 정상개방 기념 플로깅 캠페인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57년 만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 것을 기념하는 25일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생분해 비닐과 재사용할 수 있는 장갑, 집게를 담은 플로깅 꾸러미 300개와 육각 커피 쿠폰을 함께 제공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현지 법인 광주신세계는 무등산과 광주천 등 우리 지역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앞으로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며 "지역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ESG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사랑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시행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10월 25일 남구 양과동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 세대를 위하여 사랑의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지적장애 최모씨 부부와 치매 노모 등 3세대가 거주하는 이 집은 열악한 노후주택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여서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짐을 빼내고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광주순환도로가 후원한 500만원으로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고, 도배, 장판, 씽크대 설치 등 주방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될 예정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금번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바뀌게 되니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임직원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현장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26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방침 및 계획 수립, 실행,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본부장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KOSHA-MS 인증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문화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7일 오후 4시 30분 1동 2층 산부인과 외래 앞에서 신준호 공공부원장, 조문경 산부인과장, 최명이 간호부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오성남 사무관, 광주시 건강정책과 송혜자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 장비 · 인력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됐으며,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6곳이 운영하고 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여성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편의 시설이나 장비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진료에 어려움을 많아 겪었다”며 “이번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 장애 여성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세대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6일 차세대 통합데이터 플랫폼인 'rSMART'를 구축으로 미래형 뉴스마트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rSMART'은 전남대병원 맞춤형으로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수집, 의료 연구, 신약, 서비스 개발 · 교육 등도 제공해 최적의 의료 연구환경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KPS

◈ 국내외 안팎 '내실 경영' 빛난다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난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베트남 국영 정비회사인 EPS 와 '베트남 발전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베트남 국영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현지 전력설비 정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PS는 베트남 전력청 산하의 발전소 정비보수 전문 기업으로 국영 베트남전력그룹(EVN)산하 기업인 제3발전공사(EVNGENCO-3)의 자회사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올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기업 선정은 전사적 품질 혁신 활동 노력이 고객가치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넘버원 품질경쟁력으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Ⅰ. 회원사 동정

◈ 동해시햅쌀 400kg 후원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난 18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관장 양동호)에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해시 햅쌀 400kg(10kg/40포)을 후원하였다.

햅쌀 지원 대상 가구는 저소득 고령의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비를 지원받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다.

한전KPS 동해사업소(소장 박성주)는 “지난 후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독거 어르신들이 우리가 후원한 햅쌀을 받고 따듯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전달받고는 다시 한번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분이 위로받도록 후원을 계속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Ⅱ. 광주경총 소식

〈제1625회 금요조찬포럼〉

미래교육의 방향
(이정선 교육감)

1625회 금요조찬포럼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초청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광주 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야할 교육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최근 교육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AI가 바꿀 미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교육과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전문화 시키는 역량 강화까지 필요합니다. 또, 학생수 감소입니다. 과거 100만 명이 대학을 가기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30만 명을 겨우 넘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교육 방법이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춘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코딩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줘야 합니다. 광주 학생들이 외국과 실제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4차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세대에 부족했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채워나가기 위해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다섯 가지 가치를 광주교육에 실현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해 4년 계획으로 66가지 정책을 개발했고, 1년 3개월에 지난 현재 50%를 달성하여 전국에서 공약 달성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특기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꽃구경을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런데 순천만에 꽃밭을 만들어 놓으니 900만 명이 다녀갑니다. 우리가 학교에 꽃밭을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꽃을 감상하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꽃을 감상할 겁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인재들이 나와서 오늘의 실리콘 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이 구축 됐고, 오늘날의 실리콘 밸 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광주도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의 실리콘 밸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경총 회원사에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발표 (10.19)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월 19일 발표한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 실근로시간은 업종별로 분석해도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단축되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이제 일부 업종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실근로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경총은 지난 9월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서 각국 고용구조 차이를 고려(파트타임근로자 제외)한 풀타임 근로자 실근로시간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음. 이어서 금번 보고서는 산업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 실근로시간을 분석하였음.

① **(업종별 실근로시간 현황)** 각 국가별 산업구조에 국가 전체 실근로시간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19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이제 우리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됨.

② **(업종별 실근로시간 단축 추이)** 2001년과 2022년 비교가 가능한 9개 업종* 모두 2001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실근로시간이 월등히 길게 나타났으나, 이후 우리 실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우리 일부 업종이 OECD 평균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남.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가 2006년 4차 개정(ISIC Rev.4)되어 2001년과 2022년의 산업분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분류 변경 시 구성업종이 나뉘거나 통합된 10개 업종은 시계열 분석시 제외

- 이들 9개 업종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OECD가 1.4시간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1시간 감소하였음.

③ **(임금근로자 비중에 따른 업종 실근로시간 현황*)** 2022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인 9개 업종의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우리나라 36.65시간, OECD 평균 36.74시간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근로시간 정책의 주 고려대상이 임금근로자임을 고려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

- 80% 미만인 7개 업종은 우리나라 39.31시간으로 OECD 평균 36.67시간보다 2.64시간 더 긴 것으로 분석됨.

◆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10.23)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되었고, 이들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❶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인식)**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되었고,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침.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음.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만명, 고용부): 5.6('20)→ 5.2('21)→ 6.9('22)→ 12.0('23)

❷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규모는 평균 16.2만명으로 집계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요청 기업: 응답 기업의 36.9%

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침(기타 응답 2.8%).

❹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직접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16.4%로 높았음(복수응답).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6.5%가 '복잡한 채용 절차'라고 답변(복수응답). 그 외 '짧은 체류허용기간'이라는 응답은 31.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는 응답은 20.7% 순으로집계

❺ **(가장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설문한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음(복수응답). 그 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라는 응답이 20.7% 순으로 집계

❻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인건비)**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을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으나 임금과 숙소비 · 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❼ **(외국인력 통합관리의 필요성)**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집계

◆ 경총, 「최근5년(2018~2022)간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주요특징과시사점」 발표(10. 25)

○ 지난 10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층(15~29세) 2명 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는 청년이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1년 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큰 비경활 청년은 전체 비경활 청년의 20% 내외로 취업 시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노동경제동향

❶ **(청년 2명 중 1명,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최근 5년 내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50%를 넘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가장 많았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22년 다소 줄었지만 5년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18) 315천명[6.6%] ➡ ('19) 378천명[7.9%] ➡ ('20) 467천명[9.8%] ➡ ('21) 445천명[9.8%] ➡ ('22) 382천명[8.9%]

▸[ ]안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

❷ **(「쉬었음」 주된 이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최근 5년 간 청년이 '쉬었음' 상태에 있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쉬었음' 주된 이유가 '중대한 질병 · 장애는 없지만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음'인 것과 차이가 있었다.

* ('18) 99천명[31.5%] ➡ ('19) 126천명[33.4%] ➡ ('20) 179천명[38.3%] ➡ ('21) 150천명[33.7%]➡ ('22) 106천명[27.8%]

▸ [ ]안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중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비중

❸ **(1년 내 취 · 창업 의사 있는 비경활 청년은 20% 내외, 대다수 임금 근로 희망)** 비경활 청년 중 1년 내 취 · 창업 의사가 있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비교적 큰 청년은 전체 비경활 청년의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절대다수는 임금 근로를희망했다.

❹ **(임금 근로 희망 비경활 청년이 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적성 및 전공」)**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경활 청년은 취업 시 '자신의 적성 및 전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어려웠던 2021년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가장 큰 고려 요소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❺ **(임금 근로 희망 비경활 청년이 생각하는 일자리)** 임금 근로 희망 비경활 청년이 취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월 임금수준은 '200~300만원 미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이었다.

○ 경총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❶ 직업훈련 및 일경험 강화 등

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❷ 킬러규제 혁파, 유망업종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창출력 제고,

❸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일자리 진입장벽 해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例.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일경험 기회, 직장체험, 멘토링 및 심리지원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0.26)

○ 2023년 3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전년동기대비 1.4% 성장)

※ 실질 GDP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 0.3('23.1q)→ 0.6(2q)→ 0.6(3q)

- (소비)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 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0.3% 증가.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전기대비 0.1% 증가

- (투자)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

- (수출 · 수입)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전기대비 1.3%)은 증가했고, 서비스업(전기대비 0.2%)도 증가

※ 2023년 2분기와 3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전기대비, %)

[제조업] 2.5('23.2q)→ 1.3('23.3q)　　[서비스업] 0.3('23.2q)→ 0.2('23.3q)

한국은행,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0.24)

○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8%), 전력 · 가스 · 수도 및 폐기물(0.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전월비) : △0.4('23.5)→ △0.2(6)→ 0.3(7)→ 0.9(8)→ 0.4(9)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비) : 0.5('23.5)→ △0.3(6)→ △0.3(7)→ 1.0(8)→ 1.3(9)

- **(농림수산품)** 농산물(△1.5%) 등이 내렸으나 축산물(3.5%)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공산품)** 제1차 금속제품(△0.2%)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6.6%), 화학제품(1.5%)등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주택용전력(14.6%) 등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10.9%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2023년 9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2.4% 하락),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1.4% 하락)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한국은행, 「20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0.26)

○ 2023년 10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2023년 11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4p 하락

* 업황BSI 추이 : 76('23.6)→ 74(7)→ 71(8)→ 73(9)→ 70(10)

※ 10월 업황BSI(70)는 2023년 2월(69) 이후 8개월만에 최저치

- **(제조업)** 10월 업황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고, 11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3('23.6)→ 72(7)→ 67(8)→ 68(9)→ 69(10)

- **(비제조업)** 10월 업황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6p 하락했고, 11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8p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7('23.6)→ 76(7)→ 75(8)→ 77(9)→ 71(10)

  ※ 10월 비제조업 업황BSI(71)는 2023년 1월(71) 이후 9개월만에 최저치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0.25)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중 98.1로 전월(99.7)대비 1.6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100.7('23.6)→ 103.2(7)→ 103.1(8)→ 99.7(9)→ 98.1(10)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4)는 전월대비 2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70)도 전월대비 4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대비 4p 상승, 임금수준전망CSI(116)는 전월대비 1p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3.4%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5('23.6)→ 3.3(7)→ 3.3(8)→ 3.3(9)→ 3.4(10)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3.3%), 석유류제품(62.4%), 농축수산물(32.5%)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10월 4.1%로 전월과 동일

※ 물가인식 추이(%) : 4.6('23.6)→ 4.3(7)→ 4.2(8)→ 4.1(9)→ 4.1(10)

2. 노사 동향

◆ 양 노총은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정부 투쟁 방침은 유지

○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10. 23 산하조직에 회계 공시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 전달

※ 노조법 시행령(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및 소득세법 시행령(회계공시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세액공제)은 10. 1부터 시행

-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 참여와 별개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11. 1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

○ 민주노총은 10. 24「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했으나, 정부에 ▲노조에 대한재정 · 사무실 지원 축소, ▲근로시간면제 조사 등 노동개혁 추진 중단 요구

○ 정부와 여당은 양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에 대해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이뤄낸 노동개혁의 성과이며, 합리적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발표

○ 한편, 경사노위는 양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 발표 직후 양 노총에 사회적대화 참여를 요청했으나, 양 노총이 11월「전국노동자대회」개최 등 대정부 투쟁 방침을 유지함에 따라 사회적대화 재개여부는 불투명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 11, 여의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11. 1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 23「전국노동자대회」조직화를 위한 회원조합 간담회에서 명분 없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발언

◆ 최근 과도한 근로시간면제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총 설문 결과에서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 꼽혀

○ 지난 10. 17 환노위 국정감사에 이어 10. 23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논란 쟁점화

※ 고용부가 지난 9. 4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최대 면제한도 인원이 32명임에도 실제 315명(파트타임 315명)을 인정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복무 불량 확인 시 징계 및 급여 환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경총은 10. 25「산업현장의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응답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조의 노동관행에 대해 불합리적이라고 답변했으며, 개선이 시급한 노조 활동 관련 관행은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고용부 및 경사노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대응 등이 쟁점화

○ 환노위가 10. 26 고용부 및 경사노위 종합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의 지난 7월 총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이었다고 강조

- 여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핵오염수 투기 반대 등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불법파업을 진행했으며, 일부 노조들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비판

- 또한, 여당은 총파업 참여 노조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파업 일정에 맞춰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고 지적

- 이정식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

○ 또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 연속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

-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연속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살피겠다고 답변